

SPORTS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프로배구 V리그 플레이오프 시작

여자부 현대건설-정관장 25일

남자부 KB-대한항공 26일 경기

한국프로배구 V리그가 25일부터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포스트시즌을 치른다.

여자부 2위 현대건설과 3위 정관장은 25일부터 3판2승제의 플레이오프(PO)를 격일로 소화한다.

남자부는 2위 KB손해보험과 3위 대한항공은 26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PO를 벌인다.

V리그는 정규리그 1위에는 '우승팀'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지 않는다. 챔피언결정전에서 승리해 우승팀으로 공인받는다.

남녀부 2, 3위 팀은 챔피언결정전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여자부 PO 1, 3차전은 수원체육관, 2차전은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다.

현대건설과 정관장을 비롯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대건설은 신구 국가대표 양호진, 이다현을 중앙에 세운다. 정호영과 박은진으로 구성된 미들블로커진도 높이고 공격력을 갖췄다.

한 달 전에 왼쪽 발목을 다친 박은진은 PO 출전을 위해 회복 중이다. 반면 왼쪽 발목을 다친 아웃사이드 히터 반아부키리치의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에야 알 수 있다.

현대건설과 정관장은 날개 공격수 한자리를 때우고자 정규리그 후반에 여러 실험을 했다. 실험의 결과가 챔피언결정전 진출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남자부는 KB손해보험의 임시 홈구장 경민체육관에서 1, 3차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2차전을 벌인다.

KB손해보험 세트 황택이는 정규리그에서 삼각판대 안드레스 비에나, 나경복, 모하메드 아랍을 고르게 활용했다.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막판에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을 영입하며 날개 공격을 강화했다.

2021-2022시즌 노우모리 케이터를 앞세워 챔피언결정전 마지막까지 대한항공을 압박했지만 결국 준우승에 그쳤던 KB손해보험은 이번 봄, 대한항공을 꺾고 3년 만에 챔피언결정전에 나서는 짜릿한 실력을 꿈꾼다.

연합뉴스

'2연패 도전' KIA, 안방서 호랑이 포효 이어간다

27일까지 광주 키움전...28~30일 대전 한화전

새 외인 아담 올리 첫 출격...투·타 활약 기대↑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KIA타이거즈가 안방에서 호랑이 포효를 이어간다.

KIA는 지난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T아이스와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개막전 경기에서 9-2로 승리했다. 2만 500석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관중들이 몰린 이날 이변호호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튿날 2차전 경기에서는 4-5로 석패하면서 개막 2연전을 1승 1패로 마감, 무난한 출발을 알렸다.

올 시즌 KIA 마운드의 분위기는 좋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개막 첫 경기에서 5이닝 2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150km를 웃도는 스피드와 강한 구위를 바탕으로 상대 타선을 제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5선발 후보에서 불펜으로 자리를 잡은 황동하는 개막전 2경기 동안 2.1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여기에 최지민-전상현-정해영 이어지는 필승조도 힘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개막 시리즈에서 모두 실점 위기 없이 깔끔하게 이닝을 막아냈다.

타선에서는 해결사 최형우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

최형우는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 4타수 1안타 2타점을 올리며 활약했다. 이날 8회말 1사 만루

상황 타석에 오른 최형우는 중앙 담장 앞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이 득점으로 KIA는 역전에 성공했다.

한준수 역시 무서운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개막 1차전 경기에서 8회말 1사 2·3루 타석에 올라 상대 4구째 145km 직구를 걸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포를 쏘아 올렸다. 2차전 경기에서는 9회말 1사 상황 상대 3구째 146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켰다.

여기에 김선빈(7타수 4안타 3타점 타율 0.571)과 이우성(7타수 3안타 2타점 타율 0.429) 등이 맹활약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다만 '슈퍼스타' 김도영이 부상 약재를 맞았다.

김도영은 지난 22일 개막전 1차전 경기에서 2번타자 겸 3루수로 출전했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초 1사 상황, 타석에 오른 김도영은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1루 베이스를 돌아 다시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상태 점검을 위해 달려온 트레이너는 김도영이 경기에 뛸 수 없다고 판단, 윤도현과 교체했다.

이후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MRI 검사를 한 결과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 그레йд1(부분 손상) 진단으로 심각하지 않지만, 4월 내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2주 후 재검진을 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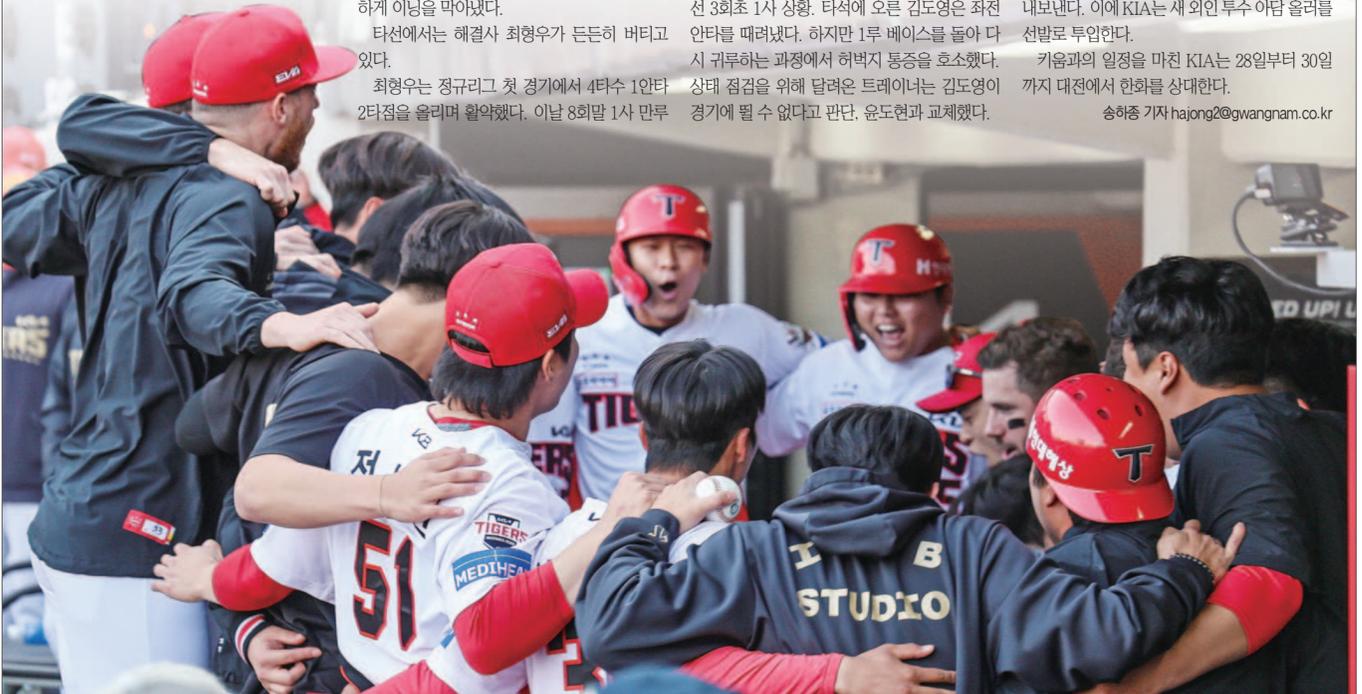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에서 KIA는 앞으로의 주중 경기를 키움하이퍼로즈와 치르게 된다.

홈경기 감독이 지휘하는 키움은 개막전 상대인 삼성에게 2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무승부로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 다만 카디네스, 푸이그, 최후환 등이 뛰어난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키움은 2경기 동안 홈런 3개를 포함해 안타 25개를 몰아친 만큼 경계해야 한다.

광주에서 만난 키움은 김윤하를 25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새 외인 투수 아담 올리를 선발로 투입한다.

키움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에서 한화를 상대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BO-완도군, 동계전지훈련 남해안벨트 MOU

정식 규격 야구장 3면 등 105억원 투입...2027년 완공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최근 전남 완도군과 국내 프로·아마추어 야구팀들의 동계전지훈련 및 대회, 야구관련 행사 등 야구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남해안벨트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완도군은 정식 규격 야구장 1면과 야구·축구 등 복합종목경기장 1면, 실내 야구 연습장 등 2027년까지 총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계전지훈련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에 개장한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 동계전지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부상 및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선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훈련이 가능한 실내 야구 연습장도 올해 내 완공하는 등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된 동계전지훈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허규연 총재는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완도에 새롭게 조성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야구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 협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규연 총재는 해남군을 방문해 지난해 협약했던 남해안벨트 인프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야구장 조영 중설 및 기존 우수스텔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정성천 감독, 라오스 여자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여자축구 WK리그 인천 현대제철을 이끌었던 정성천(53) 감독이 라오스 여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정성천 감독을 매니저먼트하는 디제이매니저먼트(대표 이동준)는 24일 "라오스축구협회가 지난 21일 정성천 감독과 라오스 여자 대표팀 사령탑 계약을 체결했다"며 "최근까지 베트남 하노이의 박항서 국제축구아카데미에서 기술총괄감독을 맡아왔던 정 감독은 오랜 여자 축구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여자 대표팀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대표팀 코치 및 감독을

지낸 정 감독은 2019년 10월 인천 현대제철 사령탑을 맡아 2시즌 연속 팀의 통합우승을 지휘했다.

2021년 3월 현대제철과 결별한 정 감독은 그해 9월 베트남의 하노이 여자축구클럽(WFC) 지휘봉을 잡았고 이후 박항서 감독이 하노이에 설립한 국제축구아카데미에서 기술총괄 감독을 맡아왔다.

정 감독은 "라오스 여자 대표팀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책임감을 느낀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며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연합뉴스

'ACLE 8강 진출' 광주FC, K리그1 대구전 경기 조정

내달 26일→9일로 앞당겨져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에 진출하면서 광주와 대구FC의 K리그1 10라운드 경기가 앞당겨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K리그1 광주와 대구의 10라운드 경기를 기존 4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서 4월 9일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지난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비셀 고베를 3-0으로 꺾고 2024-2025 ACLE 8강에 진출했다. 당초 지난 5일 열린 16강 1차전에서 0-2로 패해 탈락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전·후반을 2-0으로 마쳤고, 연장전에서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의 결승골로 최종 승자가 됐다.

이후 17일 말레이시아 쿠아라룸푸르 AFC 하우스에서 진행된 ACLE 8강 대전 추첨을 진행했고,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경기에서 광주FC 조성권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우디의 맹주 알힐랄과의 대전이 확정됐다. 광주는 4월 25일 알힐랄과 맞붙는다.

광주가 알힐랄을 꺾게 된다면 알아흘리(사우디)-부리람유나이티드(태국) 경기의 승자와 4강

전을 치른다.

대구와의 K리그1 장소는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동일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배드민턴 안세영, 아시아선수권 출전 불발

허벅지 내전근 파열...그랜드슬램은 다음에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불의의 부상으로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랜드슬램 달성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24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주최 측에 안세영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협회는 세부 진단서 등 추가로 주체 측에 전달할 증빙 자료를 안세영의 소속팀 삼성생명 측에 요청

한 상태다.

이로써 다음달 8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안세영의 불참이 확정됐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석권하고, 지난해에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배드민턴 그랜드슬램'을 위해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정조준했으나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안세영은 지난 20일 오른쪽 허벅지 내전근이 일부 파열돼 3주가량 재활 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지난 17일 막을 내린 전영오른 아마추어 야가네(일본)와 준결승전 마지막 게임에서 허벅지 통증을 처음 호소한 바 있다.

이후 결승에서도 통증이 지속된 가운데 독감까지 겹쳤으나 알츠이틀 2-1로 어렵게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건너뛰는 안세영은 다음달 27일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혼합단체전 슈퍼리먼컵을 현실적인 복귀 무대로 잡고 재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